

대일정밀장치·부품상담회 보고회

지난 6월 6일(일)부터 8일(화) 사이에 대만에서 「2010 대일정밀장치·부품상담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일본(동경, 카나가와, 나가노, 오오사카, 교토, 후쿠오카등) 의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합계 17개 회사가 참가하였습니다. 현지에서는 대일정밀장치·부품상담회 이외에 공업기술연구원(ITRI) 이나 각 지역의 사이언스 파크 시찰 및 대만기업과의 정보교류회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NPO법인 벤처지원기구 TSUNAMI가 공동개최를 하였기에 이에 간단하게나마 상담회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 일시 : 2010년 6월 6일(일) 공업기술연구원(ITRI), 신주(新竹) 사이언스 파크 시찰
6월 7일(월) 타이중(台中)의 중견기업 방문, 중부 사이언스 파크 시찰
6월 8일(화) 대일정밀장치·부품상담회
- 장소 : 대만 타이중 하워드 프린스 호텔(Howard Prince Hotel Taichung) 화연청 4층
- 주최 : 대일산업기술합작촉진회, 중화민국 정밀기계발전협회, 아동관계협회 과기교류위원회
- 공최 : 신일화 산업기술 포럼, NPO 법인 벤처지원기구 TSUNAMI, 중화민국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재단법인교류협회, 대만광전흥 반도체설비산업협회(TOSEA)
- 개최개요 : 일본의 중견·벤처기업과 대만중견기업의 협력관계에 의한, 중국시장개척 가능성을 탐색
- 상담분야 : PCB, 정밀가공기계, 반도체, 오프트 엘렉트로닉스 산업, 디스플레이 응용제품, 패널 및 모듈에 관한 설비·컨포넌트 등



재단법인 공업기술연구원 (ITRI)



경흥기전공업 고분유한공사



미팅 풍경



중부 사이언스 파크

《신주 사이언스 파크》 신주 사이언스 파크는, 1980년 12월 15일에 설립된 대만 최초의 사이언스 파크로, 설립 이래, 고품질의 하이테크 산업 발전기지를 만든다는 모토로 활동해 왔다. 20파크내에는 400개 정도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거점을 두고 있고, 대부분이 반도체, 컴퓨터, 통신, 오프트 엘렉트로닉스등의 전자산업 기업이다. 신주 사이언스 파크는 대만의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다. 파크의 개발, 건설, 전체적인 관리는 용이주도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이언스 파크의 전형이다. 신주 사이언스 파크는 대만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기업이미지도 대내외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오랜기간의 노력을 통해 신주 사이언스 파크는 세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뿐만 아니라, 많은 내외 외빈이나 보도기관들이 방문하여 경제학, 도시발전학자들의 좋은 연구예가 되고 있기도 하다.

《중부 사이언스 파크》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의 중부 사이언스 파크는, 2002년 9월 23일 행정원에서 중부 사이언스 파크 설립 준비계획으로 인정된 이래, 중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하에 공공사업과 기업 공장이 동시에 건설된다는 동시 시공방식을 이용한 건설이 개시되었다. AUO 진출이래 하이테크기업의 진출이 가속되었고, 파크에는 이미 진출허가 받은 기업수가 도합 100개 회사를 넘어서는 상태이며, 그 투자금액은 17조위안에 달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천시(하늘이 준 기회), 지리(지리적인 이점), 인화(사람들의 화합)의 이점 및 정부의 테크놀러지 산업 고도화정책우선 추진등의 요인 하에, 중부 사이언스 파크 클러스터가 차례로 형성되어, 이와 병행으로 점차적으로 신주 사이언스 파크, 남부 사이언스 파크의 기업과의 직결에 인한 대만의 테크놀러지 아일랜드의 코어 역할로 건축되어, 국제무대에서도 큰 이색을 띠고 있다.



재단법인 공업기술연구원(ITRI) 이사장 사이 칭엔(蔡 清彦氏)



경제부 지식처 수석기술고문 왕 용묘오(王 永妙氏)



상담 풍경



강연 풍경



저체 사진

【코멘트】

이번 상담회는, 일본에서 참가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열기로 뒤덮는 상황이었습니다. 1회사당 평균 5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재회 미팅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株)TSUNAMI 네트워크 파트너스
(株)TSUNAMI 온더로드
(TEL) 045-470-8088
(FAX) 045-470-8090
井 汲 / 飯 塚 / 吉 岡